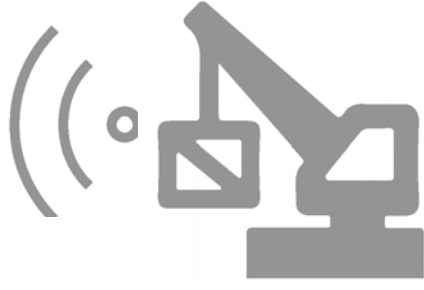


막무가내 공사현장 큰 코 다친다

기준치 이하 소음도 애견 피해 배상

시공사, 개 30마리 폐사 책임
조정위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



생활소음 기준치를 웃돌지 않아도 가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하거나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사냥개 훈련 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터널 공사장 인근에서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A씨는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개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시공사와 발주청을 상대로 1억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부산 기장~울산 울주 간 복선전철 터널을 짓는 이 공사는 지난해 4월16일 시작돼 올해 1월5일까지 진행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A씨가 공사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개 200여마리를 사육·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별다른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공사장 인근의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을 기록해 통상적으로 가족피해가 인정되는 70dB은 물론 소음 진동법상 사람의 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사육 환경,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개는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고려됐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유산·사산한 15마리, 압사·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해 피해액 1500만원을 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

지하수 줄면 환경분쟁 조정 대상

굴착공사로 인한 피해 추가
지자체, 직권 조정 요청 가능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저하, 이동경로 변화 등도 환경피해분쟁 조정의 대상이 된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해 제3자가 도움을 주는 중재 제도도 도입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수단을 추가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에 공포된다.

개정법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

그동안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의 피해가 생겨도 피해자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분쟁 해결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 제도도 도입했다.

조정·재정·알선 등의 기존 수단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환경분쟁 조정위는 설명했다.

조정은 조정위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재정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알선은 당사자의 만남을 주선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중재위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쟁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총살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중앙조정위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늘렸다.

또 다수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봄~가을철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정부, 백령도 서식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지키기 나섰다

백령도에서 봄~가을을 보내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보호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 탓에 점점 서해안에서 자취를 감추는 탓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遼東)만 유빙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와 황해도 서해안에서 먹이를 찾아 먹거나 휴식한다.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점박이 물

범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점박이 물범은 해양오염·온난화·연안 개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개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국립수산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1930년대 8000마리에 달했지만 1980년대 2300마리, 2000년대 1000마리 이하로 줄었다.

백령도에 나타난 개체는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감소했다.

해수부는 점박이 물범을 체계적으로 보

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중국과 공동 조사·연구를 벌여 점박이 물범 개체군이 줄어드는 원인을 밝히고, 어린 개체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보호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해양 폐기물 수거와 인공 휴식처를 조성하는 등 서식환경을 개선한다. 백령도 물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내년 하수관 정비 등 3900억 투입

광주·전남 3049억 반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년도 하수도분야 예산으로 관내 지역 190개 사업에 총 390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하수도분야 예산 감소 영향으로 올해(4010억원) 대비 106억원이 줄어들었다. 환경부 산하 7개 지방(유역)청 가운데 예산이 가장 많은 규모라고 영산강환경청은 덧붙였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현재 설계·공사 등이 진행 중인 129개 계속사업에 3665억원, 내년부터 새롭게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된 61개 사업에 239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154억, 전남 2895억, 제주 827억, 경남 남해·하동 28억이다. 분야별로는 하수관로정비 2370억, 하수처리장확충 1480억, BTL 등 차입금 상환액 54억원이다.

하수관로정비 예산은 강우 시 침수가

찾은 목포 등 저지대의 우수배제시스템 개선과 그간 씩크플(지반침하)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노후관로 교체 등에 집중 투입된다.

하수처리장확충 예산은 도심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잇따르던 광주, 목포 남해·북항 처리장의 악취저감 설비 개선 등에 투입된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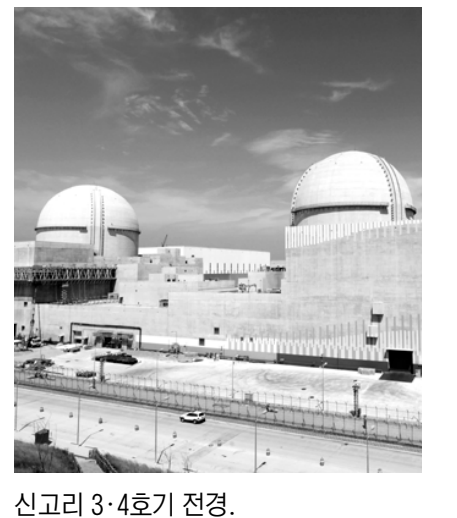
신고리 원전 '검증서 위조' 제보자에 3500만원 포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신고리 3·4호기 원전(울산)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와 관련한 제보자에 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 신문고를 통해 지난 2013년 4월 제보된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아 해당 케이블을 전면교체하고 업체 관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대해서 1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타 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원자력안전 울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중이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울부즈맨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



신고리 3·4호기 전경.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